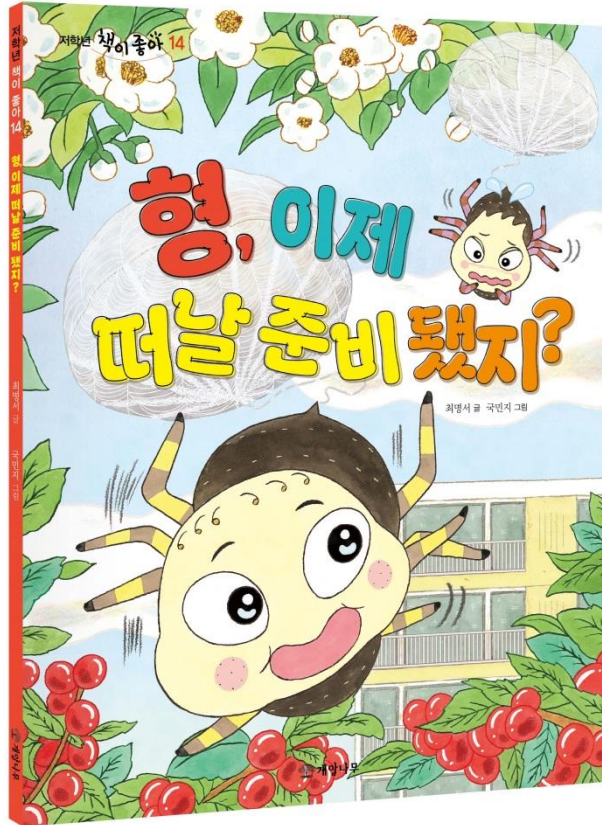


저학년 책이 좋아 14

형, 이제 떠날 준비 됐지?



최명서 글 | 국민지 그림 | 76쪽 | 핵심 주제: 꿈, 용기, 도전, 모험, 가족애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꿈을 찾아 떠날 이들에게 용기가 되어 줄 부적 같은 이야기

평생 베란다에서 산 집 거미 꾸치가 형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깥세상으로 나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는 용기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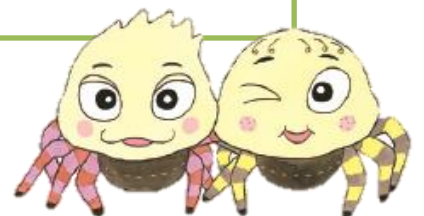
교과연계

- 1학년 2학기 국어-가 4. 감동을 나누어요
- 1학년 2학기 국어-나 8. 느끼고 표현해요
- 2학년 1학기 국어-나 5. 마음을 짐작해요
- 2학년 2학기 국어-가 2. 서로 존중해요

책 읽기 전, 생각해 봐요

Q. 표지를 보고 두 거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Q. 거미가 베란다에 사는 게 좋을지, 바깥세상에서 사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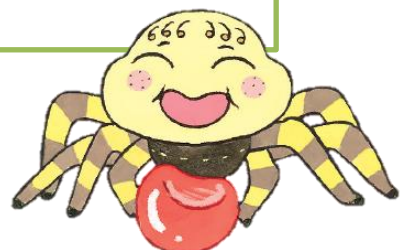


Q. 꾸치와 무치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Q. 꾸치의 꿈은 무엇인가요?

Q. 무치는 왜 꾸치가 바깥세상으로 가는 걸 반대하나요?

Q. 꾸치는 왜 바깥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나요?



Q. 일반 거미들과 달리 꾸치가 좋아하는 먹이는 무엇일까요?

Q. 다음 그림을 보고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빈칸에 번호를 적어 보세요.



무치가 잠든 사이
베란다 밖으로 탈출했다.



무치와 함께 바깥세상으로
나온다.



함께 바깥세상으로 가자고
무치를 설득한다.



무치가 기다리는 베란다로
다시 돌아갔다.



사슴벌레의 공격을 받았다.



바깥세상이 궁금해
베란다에서 관찰했다.

1

Q.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전에는 몰랐는데, 형이랑 사는 게 좋아졌어. 그래서 말인데…… 함께 바깥세상에 가지 않을래? 거긴 먹을 것도 많고 친구들도 있어.”

꾸치는 간절한 눈빛으로 무치를 바라보았다.

“위험할 텐데 괜찮을까?”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대. 위험은 언제나 닥쳐오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 되잖아.”

무치는 눈을 커다랗게 떴다.

“누가 그런 말을 해?”

“내 친구 딱새가. 이름은 포롱이야.”

“딱새? 거미가 어떻게 딱새와 ①_____가 될 수 있어! 너무 위험하잖아!”

무치는 기가 막힌 듯 몸을 뒹 돌렸다. 꾸치는 무치 앞으로 가 말했다.

“위험할 때 서로 도와주면 ①_____지!”

(1) ①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가깝게 오래 사귀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두 글자.

(2) 무치는 왜 바깥세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Q.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그리고는 바깥세상에서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다. 사슴벌레에게서 도망친 일부러 아파트 6층 베란다로 날아오른 일까지. 무치는 이리저리 기어다니며 ①_____ 생각했다. 이윽고 마음을 다잡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 보자.”

“야호! 진짜지? 지금 당장 떠나자!”

꾸치는 신나서 온몸을 흔들었다. 무치는 말없이 천장을 기어 현관으로 갔다.

(1) ①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세 글자.

(2) 꾸치는 어떻게 형을 설득했나요?

(3) 꿈을 이루게 된 꾸치의 기분을 짐작해 보세요.

Q. 바깥세상으로 나온 무치와 꾸치는 어떤 기분일까요? 기분이 드러나도록 표정을 완성해 보세요!

